

# Sermon of the Week:

## Noah's Altar is Our Altar on Which to Offer Our Old Selves

**Passage:** Genesis 8:1-4, 15-22

**Date:** July 7, 2024

**Pastor:** Dongsuk Chung

Complete faith does not end at believing that Jesus died on the cross and resurrected for me, but it also involves believing that I died with the Lord when He died, and I rose with Him when He rose.

People who are clearly reborn through the Word of Truth have died to the world, and the world must be dead to them in order for them to speak words of light to the world. The reason why the things of the world cannot infiltrate us is because the inner person of the Spirit comes alive, creating a separation from the world, so that the world cannot influence us. Just as a ship needs water to stay afloat but is a separate entity from it, our bodies live in the world but are not influenced by it and can instead overcome it.

As we live a life of obedience through the grace of life given from above by God, we will distance ourselves more from this world and abandon the things of this world without hesitation. Because this is accomplished through the cross, the life of the cross becomes the most precious to us.

No matter how difficult all the circumstances of the world become, do not worry. The life of Jesus transcends death. If we have received the spirit of life, it flows into our soul, and then flows

out of our soul to our body, ruling over it. When this happens, whether it's a problem of our soul or body, the Lord will take responsibility for everything. Worries and anxieties arise because "I" am alive and because I am the master of my life. Even if the devil deceives us by distorting our view of the circumstances around us, we must have the assurance that Jesus, who died on the cross and resurrected, and transcended death, is our master, our new life, and resides within us. When we have such assurance, the present reality is not something to worry about, as it just passes by. This is our true, living faith today. This is the heart of a saint who possesses the resurrection life.

The ark guided Noah from the old world to the new world. The first thing Noah did after coming out of the ark was to build an altar. An altar is a place where dead offerings are laid, and in our case, the cross is the altar. The altar is where I go to experience the death of my old self through the cross of Jesus.

In Exodus, when building an altar with stones, it is commanded not to chisel the stones. This means to not polish the old self by attempting to improve or beautify it, chiseling away at it in pursuit of perfection, as we understand ourselves as beings unable to obey the Law. This indicates that we should not strive to uphold the Law or endeavor to achieve holiness. We must come to realize that we are sinners who deserve to die. When we clearly understand that we are spiritually dead, once we die, the Lord, who became the sacrifice on the altar, comes alive and works in us. The more we die, the more we are filled with Christ, and the more we confess that we are

helpless sinners, the more we are filled with the Lord. This is the way of the cross and what pleases God.

For those who have received salvation and stepped onto the new land, building an altar is the greatest blessing. When faced with any problem or trial, trying to solve it ourselves often complicates matters further. Death on the cross is the only answer to every problem. Because our attempts to solve problems ourselves makes the situation more complicated, we must die. We must entrust our problems to the Lord so that He may appear. Whether the problem is big or small, our flesh's limited view can only see the environment and circumstances, which leads to resentment and complaints. When viewed from God's perspective through the eyes of faith, we realize that this circumstance or environment is a place to praise the Lord. Therefore, the apostles who encountered God ga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whether good or bad.

Jesus is alive now and is with us through the Holy Spirit. As a church, it is our mission to manifest in us the character, the richness, and the likeness of Christ. The Word of life through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must be proclaimed through our entire being - spirit, soul, and body. May this faith, where Jesus is manifested through our lives, become a reality.

Please scan the QR code with your phone's camera for the link to the YouTube video of the full sermon.



# 심니소식

## 나성교회



## 심성교회

### 이번주 은혜의 말씀

**본문:** 창세기 8장 1-4, 15-22절

**날짜:** 7월 7일, 2024년

**설교자:** 정동석 목사님

오전한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이 나를 위함이라는 것을 믿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님이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거듭난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은 내게 대해서 죽어야 세상에 가서 빛이 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의 것이 내 안에 침투하지 못하는 것은 영의 속사람이 살아나 세상과 분리가 일어나 세상이 내게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배는 반드시 물이 있어야 하지만 물과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몸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는 관계가 없이 오히려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삶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은혜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세상을 멀리하고 세상 것을 미련 없이 버리는 것이 점점 강해집니다. 십자가로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십자가가 가장 귀중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환경이 점점 어려워져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생명을 죽음을 초월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그 생명의 영을 받았다면 그 생명이 내 혼으로, 내 혼에서 몸으로 흘러가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영혼 문제를 육신 문제를 주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염려 근심은 내가 살아 있기 때문이요, 주인 노릇 하는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가지고 마귀가 꾀일지라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죽음을 초월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

이시고 나의 생명이시며 내 안에 와 계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한 확신을 가질 때 눈앞의 현실은 염려할 것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실제적인 믿음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성도의 마음입니다.

방주는 노아를 옛 세상에서 새 세상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후 노아가 했던 일은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제단이란 죽은 제물을 올려놓는 곳으로 곧 십자가가 제단입니다.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옛사람인 나를 죽이는 것이 제단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돌로 제단을 쌓을 때 정으로 돌을 쪼아 다듬지 말라고 합니다. 옛사람을 꾸미지 말라는 것으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거나 거룩하게 되려고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은 존재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으면, 곧 내가 죽으면 제단 위에 제물 되신 주님이 살아서 활동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수록 그리스도로 충만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수록 주님으로 충만되는 것이 십자가의 도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됩니다.

구원을 얻은 사람, 새 땅 밟은 사람은 제단 쌓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무슨 문제나 시련이 있을 때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면 더 복잡해지곤 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죽음 만이 해결입니다. 해결하려고 하면 더 복잡해지니 죽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타나도록 주님께 문제를 맡겨야 합니다. 육은 문제가 크든 작든 환경 밖에 안 보이고 그것밖에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원망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환경이 찬송을 불러야 할 위치임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도들은 좋은 일든 나쁜 일든 범사에 감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살아 계셔서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풍성함, 예수 그리스도의 어퍼하심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는 것이 교회된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 영혼·몸·전체를 통해 선포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이 신앙이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해당 설교의 전체 영상은 왼쪽의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해 주세요.

### 나성교회 일정

- 2024년 대심방 기간 중입니다.
- 9월 4-8일 삼성교회와 연합집회가 서울 삼성교회에서 있습니다.
- 나성교회 EM 단기선교 8/4(일) ~ 8/9(금), 멕시코 티후아나

### 삼성교회 일정

-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7월 25일(목) ~ 27일(토)
- 청소년부 하계수련회 8월 5일(월) ~ 7일(수), 경기도 가평
- 청년부 하계수련회 8월 15일(목) ~ 18일(일), 경기도 가평
- 매주 수요일 기도 및 교제모임이 있습니다. (오후 3시 30분, 4층 선교회실)

### 나성교회 온라인 헌금



온라인 헌금 페이지는 왼쪽의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해 주시고 카메라 화면에 나오는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 나성교회 연락처

- +1 562-690-7979
- https://nasungchurch.net
- information@nasungchurch.net
- 1620 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 나성교회 예배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대예배실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대예배실
영여부 예배 (RHBC)	오전 11시10분	EM 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대예배실
유치, 유년부 (Seeds)	오전 11시	Seeds Room
중, 고등부 (Abide)	오전 11시	EM 예배실

#### 삼성교회 연락처

- +82 02-2293-4421
- http://samsungch.or.kr
-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400 (우) 04701
- 지하철
  - 2호선 상왕십리역(1번 출구)
  - 2호선 신당역(2번 출구)
- 버스
  - 147, 202, 241, 302, 463, N62, N73, 1017, 2012, 2013, 2014, 2015, 6211, 성동01

#### 삼성교회 예배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대예배실 (지하 1,2층)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대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대예배실
유치부	오전 11시	4층 예배실
유년 주일학교	오전 11시	2층 예배실
청소년부	오전 10시 30분	3층 예배실
청년부	오후 2시	3층 예배실

# 중보기도

## 교회 공통 기도제목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사랑하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는 말씀처럼 주님이 성도들 안에 살아 움직이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사역자들 (정동석 목사, 서영민 목사, 이해운 목사, 김재형 목사, 차재성 목사, 임주영 목사, 제레미 서 목사)의 사역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 교회학교 (유치부, 유년부, 청소년부)를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과 교사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과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 다음 세대가 잘 양육될 수 있도록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연합사역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준비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 지방과 해외에서 인터넷을 통해 말씀으로 하나 된 지체들을 위해
- 섬이나 오지 등 교회가 없는 지역의 복음 전도를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 새로 나오시는 새가족분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 광주기도처의 성도들을 위해
- 나성교회 영어부(EM)의 사역자와 성도들을 위해
- 임주영 목사 멕시코 선교를 위해 (가족들의 현지 적응과 복음 사역)

## 나성교회 중보기도 제목

- 김영숙 자매 (제3여선교회)- (긴급요청) 유방암 4기에서 간으로 전이되어 복수가 차고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 박승일 장로 (모세회) - (긴급요청) 폐렴증세로 인한 후유증으로 중환자실로 입원해 계십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영자 집사 (모세회) - 폐암 4기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 장교숙 자매 (한나) - 치료 후 전신허약으로 집에서 회복중입니다. 빠른 회복과 건강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 양홍숙 권사 (모세회) - 신장질환과 심장이상의 합병증으로 요양원에서 치료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심민지 자매 (제4,5여선교회) - 뇌출혈로 인한 후유증으로 망막 신경장애로 시력이 손상되고 안압으로 인한 녹내장으로 시각이 좁혀져 막혀가고 있습니다. 또한 신체 반신의 감각이상으로 생활의 장애가 있습니다. 온 전신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모나 자매 (에스더회)- 갑상선암으로부터 전신으로 전이되어 뇌출혈로 인한 불편함이 있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회복과 피아노로 하나님께 계속 찬양 돌리기를 원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 최지민 자매 (제1여선교회)- 유방암과 림프 전이가 되어 치료하는 중에 면역력이 떨어져 위와 목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전신 건강 회복과 강건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 한아림 자매 (청년회)- 대장암으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으며 강건케 되기를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 삼성교회 중보기도 제목

- 박연옥 집사 (성동2구역, 75세) - 폐암 치료 중입니다. 다른 부위로 전이되지 않고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옥경 집사 (82세) - 치매와 우울증 증세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현숙 집사 (61세) - 귀 진주종 수술 후 두통과 귀에 통증 심합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문옥 집사 시어머님 (김영례 90세) - 고관절수술 후 와상상태로 입원 중입니다.
- 정신자 집사 - 자녀들 (하영주, 주연, 승찬, 영숙) 알콜중독에서 벗어나 주님을 영접하고 영혼구원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최라예 자매 (15세) - 위산과 담즙의 과분비로 위/식도/십이지장 염증과 궤양 있음, 소화기관들의 비정상적 호르몬 분비로 인한 기관의 염증 및 통증유발, 발병 원인이 정확히 발견되고 근본적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한정민 자매 (49세) - 항암 20차, 방사선 두 달 치료 마치고 표적 항암 치료 중입니다. 7월 3일 수술 예정이었으나 의료파업으로 연기되어 새로 수술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이 가능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권오중 집사 (47세) - 척수증양으로 인한 사지마비(가슴 아래 하반신) 장애입니다. 강직약, 통증약 등 약을 많이 먹는데 약기운을 잘 견딜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형차순 집사 (65세) - 간경화로 간에 종양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기력이 없고 몸이 많이 힘이 듭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선교소식



## 선교사 소식

### 브라질/멕시코 선교사 운영목 목사님 은퇴

수십년 동안 브라질 아마존에서 원주민들을 위해 사역하셨고 지난 몇년 동안 멕시코 샌퀸틴에서 선교 활동을 해오신 운영목 목사님께서 현장 선교 사역에서 은퇴를 하셨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제자 훈련, 수련회와 한방 치료 사역 등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많은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다음 소식을 보내오셨습니다.

"저는 작년 10월부터 안식년으로 멕시코 사역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동안 카자흐스탄 단기 선교와 한국에 가 있다가 지금은 돌아와서 있습니다. 멕시코 사역은 안식년을 계기로 현장사역에서는 은퇴를 하고 이제는 선교사 후원을 중점적으로 하며 필요한 선교지에 단기 선교를 다닐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선교지에 있어서 저의 가정을 소홀히 했었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제 자녀들과 손주들의 신앙을 위하여 가정 사역에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성교회의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물질로 동참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의 은퇴를 축하드리며 앞으로의 사역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삼나소식 웹사이트



<https://samnanews.modoo.at>

아래는 나성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 단체/선교사 명단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 나성교회 KM

- Home Depot 사역 - 김학철 목사
- 물댄동산 (장애인 선교 단체)
- LA 거리 선교회 - 전예인 목사
- 멕시코 (엔세나다) - 임주영 목사
- 멕시코 (티후아나) - Carlos Chavez 목사
- Love Mexico - 박세목 장로
- Albania - 양은숙 선교사
- 중동 (이라크 & 요르단) - 구금성 선교사

### 나성교회 EM

- Cambodia (TASSEL) - Joji Tatsugi
- Indonesia - 3 missionary couples:
  - a. Ruth and Austin Kuklenski
  - b. Josiah and Sophie Glesener
  - c. Michael and Morgan LeBlanc

### 주간소식

- 담임목사님의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과 영육 간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각 남녀 선교회 월례회로 모입니다. 남녀 선교회 회원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 삼성교회 가을 연합집회가 9월 4일(수) - 9월 8일(주일)까지 서울 삼성교회에서 있습니다. 집회 기간 동안 서울 삼성교회에서 모든 숙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준비를 위해 참여를 원하시는 교우들께서는 교회 입구 로비에 있는 신청서를 8월 11일까지 교회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M 영어부에서는 8월 4일부터 9일까지 5박 6일간 멕시코 티후아나에 단기 선교로 11명이 출발할 예정입니다. 모든 일정을 위해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여선교회 합동으로 멕시코에 파견한 임주영 목사님 선교 후원금 기금 마련을 위해서 8월 4일 주일 바자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혹시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이나 새 물건들이 있으시면 기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선교소식



# 선교소식

선교지 소개: 멕시코 엔세나다

임주영 목사



멕시코 엔세나다 선교센터

안녕하세요! 임주영 목사입니다. 저는 7월 12일(금) 멕시코 엔세나다에 잘 도착하였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도 여러분께 감사인사드립니다. 앞으로 사역이 진행될 엔세나다(Ensenada)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엔세나다는 멕시코 바하칼리포르니아주에 위치한 도시로 면적은 61.08km<sup>2</sup>, 인구는 52만명(2015년기준)입니다. 바하칼리포르니아반도에 위치한 항구도시로서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남쪽으로 125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멕시코의 군사 기지가 설치된 곳이기도 합니다. 도시는 작은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고 기후는 연중 내내 온화한 편이며, 겨울철에 강수량이 늘어나지만, 대체로 건조한 편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작물이 현지에서 재배되는데 인디오 원주민들이 일을 하려고 이곳에 모여 가족들은 농장 주변에 촌락(깜뽀)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일을 하러 가지만 자녀들은 집에 남아 의식주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와 학교는 원주민들을 위한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지에 한인들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멕시코 선교 동역자들



사택 및 사무실



예배당



선교센터 주변 풍경

선교지 소개: 멕시코 엔세나다

임주영 목사



멕시코 엔세나다 선교센터

안녕하세요! 임주영 목사입니다. 저는 7월 12일(금) 멕시코 엔세나다에 잘 도착하였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도 여러분께 감사인사드립니다. 앞으로 사역이 진행될 엔세나다(Ensenada)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엔세나다는 멕시코 바하칼리포르니아주에 위치한 도시로 면적은 61.08km<sup>2</sup>, 인구는 52만명(2015년기준)입니다. 바하칼리포르니아반도에 위치한 항구도시로서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남쪽으로 125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멕시코의 군사 기지가 설치된 곳이기도 합니다. 도시는 작은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고 기후는 연중 내내 온화한 편이며, 겨울철에 강수량이 늘어나지만, 대체로 건조한 편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작물이 현지에서 재배되는데 인디오 원주민들이 일을 하려고 이곳에 모여 가족들은 농장 주변에 촌락(깜뽀)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일을 하러 가지만 자녀들은 집에 남아 의식주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와 학교는 원주민들을 위한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지에 한인들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멕시코 선교 동역자들



사택 및 사무실



예배당



선교센터 주변 풍경